

看護學校의 財政的 運營

간호교육의 분야에 있어 연구가 특히 최근 10년래에 많이 있었다. 학생간호원이 받는 실습의 질적개선과 교실에서 배운 이론과 이 실습과를 상호관련시킴에 있어 장족(長足)의 발전이 있었다.

간호교육자들은 학생간호원의 임상실습이 그의 교육에 중요한 일부임을 인식하여 왔다.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이 실습은 병실 수간호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Nursing Instructor가 수간호원과 협의하여 미리 계획, 선택, 감독되어야 한다. 간호교육의 질적향상과 함께 병동에서의 미감독된 (미비한) 학생의 service 시간수가 상응적(相應的)으로 감소되고 그로 말미암아 교육 program의 총경비는 높아지게 된다.

과거의 간호학교들은 병원에서 재정적원조를 받았으나 이러한 병원이 현대적 간호학교를 재정적으로 경영한다는 것은 점점 곤란하게 되었다. 병원행정자들은 강의시간의 증가가 학생간호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교육의 대가를 치르는데 필요한 시간의 근무를 불가능하게 함을 알았다.

간호교육자들은 적절한 감독, 이론과의 관련이 없는 긴 근무 시간

Sister Brendan



《필자약전》

Sister Brendan Marie Convoy R.N.B.S. 이 분은 Mercy Hospital 간호학교와 Chicago 의 Saint Francis Xavies college를 졸업. Catholic Foreign Missionary Community (New York 에 본부가 있음)의 하나인 St. Dominic Maryknoll Sisters 의 일원으로서 1957년 1월부터 부산에 있는 메리놀 수녀병원의 직원으로 있다. 현재 메리놀 수녀병원의 간호원장이며 계획중인 메리놀 수녀병원 부속간호 학교의 기획위원회에 관계하고 있다.

은 전문교육의 목적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갈등의 결과로 간호교육의 실질적 경비보다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한 많은 조사가 실시되었고 이 경비보다 공정하게 구분하기 위한 준비를 설정하였다.

이 조사는 놀랄만한 사실을 드러내었는데 전에는 학생 간호원의 교육에 들었던 경비의 50% 이상이 학생의 주거, 식사 세탁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값을 알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고찰하여 보자.

다른 부분의 교육에 있어서는 그 터 중요시되고 있지 않는 학생의 생활에 필요한 경비가 어찌서 간호 학교에 있어서는 것처럼 필수의 것으로 간과되는 것인가?

이 풍습은 Nurses Training School의 기술 견습의 교육형태에서 기원하는 것이며 그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남은 방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이 예전 형태에 있어서 학생들은 병원의 대부분의 간호과 직원들을 구성하고 있어서 오랜 시간의 분산된 교대 근무 등을 하여야만 되었다. 병원으로 하여금 Nursing Service를 이용하게끔 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병원 기숙사에서 생활하도록 요구되었다. 학생들은 숙식을 무료로 제공받았고 그 대신에 무한정한 Nursing Service를 병원에다 제공하여야만 되었다.

그렇다면 “内部住居”란 병원측으로선 필요시엔 Nursing Service를

대비하는 편리한 일이었다.

그러나 과거의 20—30년 동안에 간호교육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많은 나라에 있어서 학생들은 오랜 시간의 근무를 요구받지 않고 있으며 자격있는 Nursing Instructor의 특별한 감독하에서 일하며 이들의 업무는 최대한의 경험을 얻게 하기 위한 이러한 업무량의 감소 병원측에게 인사문제(staff problem)의 증가를 제시하였다. 학생의 근무 시간 감소 때문에 병원에서는 Nursing Service에 필요한 졸업 간호원을 더 많이 고용하고 간호업무 아닌 일에 필요한 보조원을 고용하여야만 하게 되었다.

병원의 직원 때문에 생기는 증가된 비용 때문에 병원 행정자들은 학생간호원의 교육기간중 생활유지비 증가의 정당성을 말하게 되었다. 이 증가된 비용은 학생 간호원들이(그들이 대학에 있거나 혹은 다른 교육기관에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치르어야만 된다고 생각되었다.

미국의 많은 간호학교와 병원은 대학에서 사용되는 재정적 운영 방침을 채택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학생들은 전 교육기간 동안에 수업료와 기타 비용 일체를 지불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원에 따라 자기 집에서 살거나 숙식비 기타, 비용을 지불하며 기숙사에 살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곧 다른 말로 하면 학생들은 다른 대학의 학생들과 똑 같이 그의 교육비와 생활

비를 치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기숙생활에 대한 문제는 또한 많은 간호 교육자들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고려되었다. 기숙사 생활이 병원에게 주는 재정적인 부담과는 별도로 또한 고려할만한 사회적 문제들이 있다.

고등학교나 대학의 학생들은 자기 집에서 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니지만 학생 간호원들은 비록 그들의 가정이 간호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해도 흔히 병원 기숙사에서 생활하도록 요구된다. 만일 병원이 Nursing Service를 학생 간호원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면 학생 간호원은 그가 익숙해온 사회적 배경과 가족적 환경에서 지내는 것이 더 유리한 일이 아닐까?

자연스러운 가정적 배경에서 학생간호원은 이러한 고도로 숙성되는 청춘기 때에 부모의 지도와 도덕적인 훈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도적인 책임이 기관으로 전가될 때 기관은 가족, 가정 및 교회 등 이런 사회의 강력한 유대와 고도의 이념을 적절하게 대리할 수가 있을까?

기숙사 설비는 먼 지방에서 온 학생들이나 가족적인 생활조건을 제공하는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학에 바뀐 뒤 기숙사나 유사한 주거(住居)들이 필수적인 교육program과는 별개의 것이어

야 한다.

현대적 경향과 보조를 같이 하기 위해서 간호학교는 학생 간호원의 임상 경험을 계획하고 감독하는데 있어 자유가 필요하다. 이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 간호학교는 병원의 간호학교에 대한 재정적 원조를 덜게 하여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병원은 이상 더 Nursing Service 때문에 간호학교에 의존하지 않고 교실에서 배운 이론과 부합되는 간호실습을 마련하게 되며 그로 인하여 학습경험의 연속을 보증하게 된다. 이러한 간호학교의 높은 교육적 수준은 우수한 후보자들을 이끌게 되고 Nursing Profession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게 된다.

대한간호협회와 간호원 개개인과 간호학교의 노력으로서 한국의 간호교육과 간호사업의 수준은 빠른 진전을 하였다. 한국에서의 간호는 자랑할 만한 역사를 가졌다. 한국의 간호 지도자들은 그들의 지위를 세계적 간호계 지도자들의 지위에다 올려 놓았다.

과거 20—30년래의 어려운 일들 때문에 간호사업이 겪었던 곤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간호계 지도자들은 그들의 직업이념을 지지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간호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또는 오늘날의 간호사업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용감하게 일해 왔다.